

2017. 7. 24. [월] 언론보도

중부일보

2017년 07월 24일 (월)
20면 지역

민통선서 1박2일...DMZ 프렌즈, 해마루촌 체험

경기도 'DMZ 프렌즈 4기'가 DMZ일원의 숨겨진 관광 콘텐츠를 찾으러 민통선 내 해마루촌으로 1박2일 캠핑을 떠났다. 23일 경기도와 (사)DMZ국제다큐영화제에 따르면 22~23일 DMZ 프렌즈 4기가 파주 해마루촌 일대 관광 콘텐츠 발굴 및 7월 운영을 재개한 임진강 황포돛배의 홍보기회를 위한 현장체험을 진행했다. <사진>

DMZ 프렌즈는 외국인학생 11명을 포함해 대학생, 파워블로거, 평화누리길 홍보대사 등 총 30명이 구성돼 있으며, DMZ일원 문화·체육 행사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SNS를 통해 DMZ일원의 생태·안보·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원들은 1박2일 동안 해마루촌 일원 경순완릉, 김신조 침투로, 덕진산성, 초평도, 허준묘 등 숨겨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또 직접 임진강 '황포돛배'를 타고 임진강 적벽, 원당리 절벽, 호로그루성, 고랑포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해가 뜨는 마을이란 뜻을 가진 '해마루촌'은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민통선 안에 있어 사전에 마을과 반드시 협의를 가져야 한다. 봄과 겨울에는 철새를 관찰 할 수 있고 다양한 야생화가 분포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어 자연학습과 안보체험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쉽게 갈 수 없는 해마루촌 탐방과 황포돛배 체험은 홍보단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신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DMZ일원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편집-김상희기자

11.5 X 12.9 cm

분단의 아픔 남은 길 따라



평화누리길 2코스 중 문수산에서 바라 본 조강 절경



평화누리길 3코스 중 후평리 칠채드레지

2017 평화누리길 탐방프로젝트

⑤ 평화누리길 김포 1~3코스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4개 시·군을 잇는 대한민국 최북단 길이다. 191km의 길로 이루어진 '평화누리길'은 한국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평화염전의 길이자, 우리의 고귀한 역사 유적이 살아 숨쉬는 배움의 길로 지난 2010년 5월 개장했다. 총 12개 코스(김포 3코스, 고양 2코스, 파주 4코스, 연천 3코스)로 구성된 평화누리길은 한 코스당 약 4~5시간 정도 걸을 수 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옛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아이들은 자연과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도내 다양한 역사 유적은 물론이고 마을 인걸, 논길, 제방길, 해안 철책, 한강 하류, 원정강 등도 점할 수 있어 자연을 만끽하는 데 제격이다. 멸종위기 동식물도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 만큼 천혜의 자연과 공존하는 모습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평화누리길 첫 발걸음을 서해의 첫 바람의 불어오는 김포1코스(영하강철책길→2코스 조강철책길→3코스 한강철책길)에서부터 시작해보자.



평화누리길 1코스인 영하강철책길의 종점인 문수산의 성터.

영하강철책길(평화누리길 1코스)

평화누리길 1코스인 영하강철책길은 대평항~문수산성 총 연장 14km의 길로, 외세에 맞선 우리 근세사의 역사 유적이 해안을 따라 죽 이어져 있다. 작은 포구와 랑구가 해안의 요새와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철책을 따라 조성된 길목 사이사이에는 마을들이 이어진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과 박물관도 있어 가족들이 선선하게 걸기 좋다.

1코스의 돌머리는 대평항이다. 평야 지대인 김포와 바다가 맞닿아 만들어진 이 포구는 과거 인천과 강화를 오가는 유일한 배길이었다. 갯내를 맡으며 걷다보면 김포 영하강철책길의 '운봉관'을 만날 수 있다. 운봉관은 제2차 세계대전을 첨가하고 삼국전쟁 후련, 수송작전 지원 등을 해온 역사 깊은 한적하다. 수도권 유일의 한성공원에서 한성 내부를 들여다보고 한성 생활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해군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다.

그 옆 좁은 입구로 들어가면 바다를 따라 걷는 철책 외 길에 펼쳐진다. 차디찬 철책 너머로는 강화해협과 강화도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80년 가까이 인적이 오가지 않은 여타 원초적인 자연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다. 끝자락에선 황실이 굽어차는 '손돌목'에 닿게 된다. 그동안 느릿느릿 평타했던 길은 손돌목에 와서 기꺼운 연막을 얻겨우 오내리게 된다. 경사진 곳을 따라 줄을 잡고 걷는, 페달이로 조성된 구간을 지나다보면 한강에서 떠내려 왔다는 섬 '부래도'를 스쳐 지난다. 부래도내 산에는 성터가 남아 있어 일반적인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자연보존 상태가 우수하다. 이어 서해의 마을 들뜬을 지나면 강화도를 오가던 나루터인 원평루 나루터 보인다. 해질 무렵이면 이곳에서 서해의 아름다움과 낙조를 펼쳐서 일부러 멈춰서서 머물도 있다. 그래서 이 길은 '느림으로 만남을 이어주는 길'로 표현되기도 한다.

영하강을 따라 철책선과 논길, 송길로 이어진 1코스는 문수산성 입구에서 막을 내린다. 드문드문 설치된 초소들의 모습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지 국가임을 전하지만 이 길에서는 어느새 그마저도 풍경이 된다.

조강철책길(평화누리길 2코스)

2코스(8km)는 사계절 경치가 장관을 이뤄 '김포의 금강'이라 불리는 문수산에서 시작된다. 언덕 위로 반듯하게 자리 잡은 문수산성 남문이 등산객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돼주고 있다. 이 길은 북한과 가장 인접한 구간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이 곳곳에 있으며, 우리 민족의 전쟁사와 슬픔을 보듬고 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평화누리길 3코스인 한강철책길

문수산성 남문에서 정상으로 향하는 길, 논길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발걸음을 옮기면 전망대에 이르는데 특히 아기봉과 문수산 사이 '조강포'가 돋보인다. 서해 바닷길과 한강, 개성을 잇는 수운의 요충지였던 조강포 너머에는 한남정맥이 가로지른 김포 들녘이 있고, 동쪽으로는 서울을 둘러싼 북한산과 천계산-관악산 줄기가, 남쪽으로는 어렴풋이 보이는 인천시가지가, 서쪽으로는 아늑한 종경의 강화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북쪽으로는 해안선을 따라 완고하게 늘어선 철책선과 한강 건너 북한 땅도 보인다.

전망대를 지나 흥예문에 닿으면 하산길이다. 유순한 정릉대로를 지나면 민봉선 마을인 조강리(북한 개성철책시 관문군)를 만나게 된다. 철책길로 막힌 조강리 마을길을 뒤로하고 걷는 길엔 마침내 아기봉에 도착한다. 아기봉(155m)은 한국전쟁 당시 지열원 전투가 벌어졌던 군사 요충지로, 조강리 일대를 최단거리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놓여져 있다.

한강철책길(평화누리길 3코스)
김포 평화누리길의 끝인 3코스(17km)는 아기봉 입구에서 마곡리마을회관, 후평리 칠채드레지, 석탄배수펌프장을 거쳐 전류리포구로 이어진다. 드넓은 김포평야가 펼쳐져 있고 황색 나무 한강이 흐르는 평화로운 구간이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현상의 구간이다.

아기봉 아래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마을 가림곶에는 오래된 느티나무와 향나무가 서 있어 심취를 제공한다. 잠시 쉬었다가 미로처럼 복잡한 마을길을 쫓으면 마곡리마을회관에 향하게 되는데 이때 마곡포는 조강 건너 북한과의 완경을 가능하게 했던 나루터 같은 역할을 맡아왔다. 이어 호젓한 오솔길을 지나 마을을 벗어난 영동 전경의 비바람을 품은 연화봉(해발 75m)이 보인다. 그 이후로는 칠채드레지로 유명한 후평리 마을에 오게 되고, 육중한 철조방으로 둘러싸인 석탄배수펌프장을 지나면 한강철책길의 마지막 코스인 전류리포구에 다다르게 된다. 김포 한강이 최북단 여정인 전류리포구는 군사분

해안 따라 근세 유적 쪽 이어진 1코스 운봉함서 해군 체험·서해 낙조 감상도

북과 가장 인접한 2코스 곳곳 통제구역 아기봉-문수산 사이 '조강포' 돋보여

철책 너머 한강 흐르는 평화구간 3코스 최북단 여정 전류리포구서 '분단' 느껴

계선과 인접한 탓에 어딘도 고개를 잡으면 나강 때마다 군에 출방신고를 해야 한다는 불거림이 있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건 2007년부터였다. 이처럼 포구에 남아있는 아픈은 우리 민족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매일같이 희망을 건져 올리는 어민들을 보며, 언젠간 그들이 더 먼 바다로 갈 수 있길 희망해본다.

너른 평야와 금단의 바다 등이 뒤섞인 평 김포. 여행자들은 김포를 강화도로 가는 길목으로 여기지만 그 속의 평화누리길을 찬찬히 걸으며 세심하게 눈길을 두면 5년 전 역사의 기억을 품은 유적이 다양한 볼거리가 구석구석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민우기자 21y@
/사진=경기관광공사·김포시 제공

평화누리길 1코스(영하강철책길)
대평항 - 문수산성 14km 144분 소요

대평항 1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대평항 1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대평항 1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대평항 1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대평항 1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대평항 1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문수산성 13km

평화누리길 2코스(조강철책길)
문수산성 남문 - 아기봉입구 8km 134분 30분 소요

문수산성 남문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문수산성 남문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문수산성 남문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문수산성 남문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문수산성 남문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문수산성 남문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조강포 0.9km

평화누리길 3코스(한강철책길)
아기봉 입구 - 전류리포구 17km 144분 30분 소요

아기봉 입구 1.0km, 마곡리 1.0km, 후평리 1.0km, 석탄배수 1.0km, 전류리포구 1.0km

아기봉 입구 1.0km, 마곡리 1.0km, 후평리 1.0km, 석탄배수 1.0km, 전류리포구 1.0km

아기봉 입구 1.0km, 마곡리 1.0km, 후평리 1.0km, 석탄배수 1.0km, 전류리포구 1.0km

아기봉 입구 1.0km, 마곡리 1.0km, 후평리 1.0km, 석탄배수 1.0km, 전류리포구 1.0km

아기봉 입구 1.0km, 마곡리 1.0km, 후평리 1.0km, 석탄배수 1.0km, 전류리포구 1.0km

아기봉 입구 1.0km, 마곡리 1.0km, 후평리 1.0km, 석탄배수 1.0km, 전류리포구 1.0km



DMZ서 현장체험 DMZ 프렌즈 4기 단원들이 파주 해마루촌 일원 승전전망대를 방문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사진=경기도 제공>
17.5 X 14.4 cm

DMZ 다양한 가치 참신한 콘텐츠로 발굴

‘DMZ 프렌즈 4기’ 해마루촌 1박2일 현장체험

DMZ의 숨은 가치를 알리는 ‘DMZ 프렌즈’가 DMZ 일원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민통선 내 해마루촌으로 캠프를 떠났다. 경기도와 DMZ국제다큐영화제는 22~23일 1박 2일간 DMZ 프렌즈 4기 단원 10여 명이 파주 해마루촌 일대에서 현장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DMZ 프렌즈는 각종 DMZ 관련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SNS를 통해 DMZ의 생태·안보·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홍보단이다. 이번 해

민통선 마을 간 단원 10여 명 경순왕릉·김신조 침투로 등 자연·안보·역사관광지 찾아 동영상 통한 홍보 기대감 ↑

마루촌 방문은 향후 DMZ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것으로 단원들은 경순왕릉, 김신조 침투로, 초평도, 허준 묘 등을 방문해 콘텐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자연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 해마루촌은 다양한 야생

화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종 철새 도래지로 자연학습과 안보 체험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단원들은 이번 체험활동 외에도 다음 달 DMZ 평화콘서트, 9월 DMZ 트레일러닝, DMZ국제다큐영화제 등에 참여해 DMZ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에 참가한 단원 김학면(55)씨는 “DMZ 일원은 민간인통제구역이란 점 때문에 아직도 일반인들은 멀게만 느끼는 것 같다”며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주는 아름다움을 전달해 사람들이 DMZ를 보다 친숙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쉽게 갈 수 없는 해마루촌 탐방은 홍보단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원들이 참신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도민들에게 DMZ 일원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캠프 그리브스에서 발대된 DMZ 프렌즈 4기는 DMZ의 국제적 홍보를 위해 러시아·중국·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포함한 총 30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민부근 기자 bgmin@kh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